

안정적 원지조달로 고품질 골판지 상자 생산 친환경 생산시스템 구축



고 추 월
(주)월자포장 대표이사

1984년에 설립된 (주)월자포장(대표이사 고추월)은 제주도내 포장 분야에서 40% 이상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다.

현재 제주 구좌농공단지에 위치한 월자포장은 매년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골판지 자동기계화시스템을 개발하고 골판지포장재 개발산업에 참여하는 등 신기술 개발에 전념해오고 있다.

감귤 및 각종 농, 축, 수산물 포장용 상자를 생산하고 있는 월자포장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표준출하 규격에 맞게 제작, 공급하여 물류 비용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최상의 품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월자포장은 99년 (주)월자제지를 설립하면서 원



▲ (주)월자포장 생산제품

지조달이 원활해져 고품질의 골판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용 상자를 생산자 단체와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2002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 최고경영자로 선정될 정도로 대표적인 여성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추월 사장은 지난 60년부터 농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한 월자상회를 경영하며 포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상품의 완성은 포장에 있다”는 신념으로 신기술 개발에 전념해 오고 있는 고추월 사장.

그녀는 월자포장과 월자제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종이원료의 안정적 수급 체계를 바탕으로 도내 업계 선두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고 사장은 철저한 기술 중심을 통해 구매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며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나가고 있다.

그 예로 월자포장은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 강도 높은 원단을 1일 15만장 생산할 수 있는 최신형 골게이터 및 칼라 인쇄기 등 자동화 기계를 도입해 제조공정의 생산성을 높여 농산물 수확시기에

원활한 제품 공급이 이뤄지게 하는 등 유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폐지수거 회사인 그린자원을 설립하여 환경시스템을 구축,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린자원에서 수거된 폐지들은 금농농공단지 내에 있는 월자제지 공장에 5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된 폐기물 소각보일러에서 소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농어촌 폐비닐 및 사업체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류 등을 처리해서 정부의



◀ 공장 확장 준공식

WOL-JA

친환경정책과 에너지절약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월자포장은 제주도 전역에서 수거한 폐지로 제주도 특산물인 감귤을 담은 박스를 만들어 제주도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자포장은 더 이상 개인의 회사가 아닌 제주도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업

으로 거듭나고 있다.

‘생산은 노력, 품질은 정성’이라고 강조한 고추월 사장.

여성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선 그녀는 “사업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여자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거래처에서 말조차 하지 않으려 할 때”였다고 회상하면서 “어렵게 뚫은 거래처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고객만족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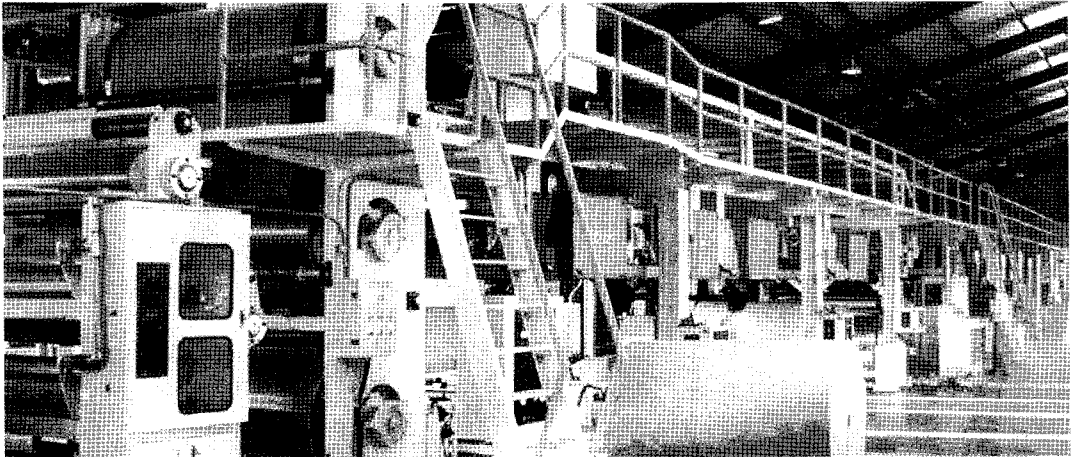
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채나 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해 주는 골판지 포장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고 사장은 “계속되는 품질관리로 구매자들의 욕구를 맞춰 나가고 남들보다 앞선 제품을 생산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탄탄한



◀ 후원장학회 등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고추월 사장



▲ 도내 최선, 최대 생산을 지향하고 강도 높은 원단을 생산하는 1,800지폭 골게이터

재무구조,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로 월자포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다.

타 지역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 신장을 올리고 있는 월자포장은 지난해 매출액은 107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월자포장은 고 사장의 뜻으로 회사에서 얻은 수익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회환원하고 있다.

감귤가격 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농가를 위해 3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중, 고교 후배들을 위

해 설립한 '추월장학회'를 통해 매년 적지 않은 장학금을 도내 중, 고교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출산 농업인 자녀에게 장학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다출산 장려를 위한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평소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져온 고 사장이 다출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제주농협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탁하게 된 것.

이처럼 고 사장은 지역사회 발전기금, 이웃돕기 성금,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오며 모범 기업인으로 존경 받고 있다.

고 사장은 "제주도민들을 위해 더욱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과 내실경영에 주력하면서 도민에게 사랑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 임직원과 따뜻한 경영인이 함께 하는 월자포장.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kw**

이한열 기자